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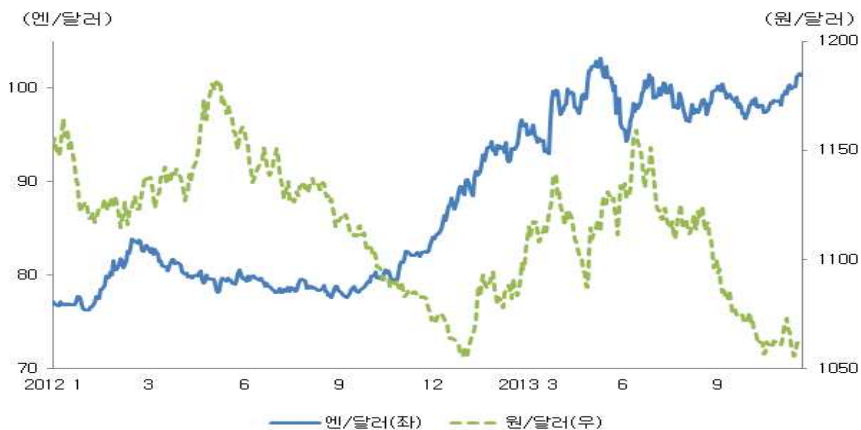
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.

-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아베 총리는 강도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본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이 시행된 2013년 초부터 엔/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.
- 엔/달러 환율은 2012년 초 77.1엔에서 2013년 5월 23일 102.8엔으로 약 33%나 상승하였으며, 이후 엔화 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.
- 10월 말부터 다시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, 11월 26일 기준 엔/달러 환율은 101.5엔까지 상승하였음.
-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원/달러 환율이 2012년 초 1153.3원에서 2013년 11월 27일 1060.3원까지 하락하는 등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.
 - 금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〈그림 1〉 엔/달러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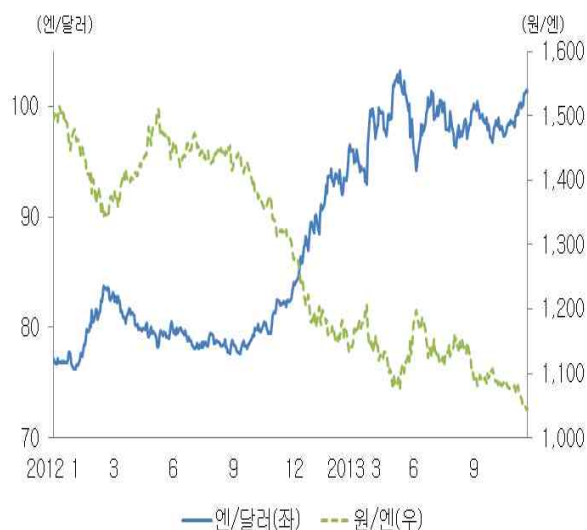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엔화 약세는 미국의 금융완화정책 축소 부담과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엔화 매도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- 미국이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양적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엔화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남.
-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어 일본 기업들은 외화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, 해당 기업들은 엔화를 매도하고 필요한 외화를 매입하고 있음.
- 향후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, 일본은 금융완화정책 지속으로 저금리 유지 가능성이 높아 양국 간 금리 차로 인한 엔화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.

■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엔화 약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은 다시 확대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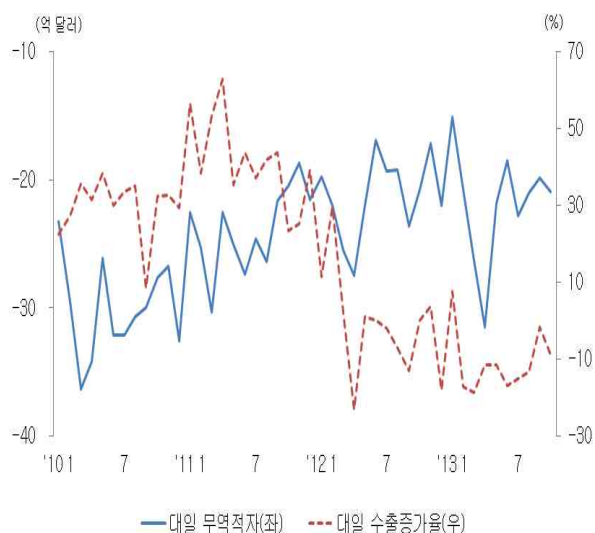
- 엔/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2012년 초 1,500원에 육박하였던 원/엔 환율이 2013년 11월 27일 1046.4원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음.
- 2010년 이후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,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 초부터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음.
- 특히, 대일 수출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.

〈그림 2〉 엔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.

〈그림 3〉 대일 무역수지 적자 및 수출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.

- 향후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또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, 이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음.
-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, 이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장기적인 엔저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의 변동성 확대도 전망되고 있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, 외환시장 변동성이 전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.

(니혼게이자이, 연합뉴스 등)